

2011년 7월~9월 소식지

No.38

작은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가는



성프란치스코의 집





열매

- 오세영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등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탕자만은 등글다.

땅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답답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르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명을
존재는 등글다는 것을.

스스로 익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CONTENTS

- 02 목차
- 03 여는 글
- 06 우리들의 이야기 I _ 추석
- 08 우리들의 이야기 II _ 꿈은 이루어진다.
- 09 라파엘의 그림세상
- 10 우리들의 이야기 III
가족 사랑도 플러스(+)
성프란치스코의집 사랑도 플러스(+)
- 14 당신이 머무는 자리

후원회 미사 안내

성프란치스코의집 또 하나의 가족인 후원자·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위한
후원회 미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봉헌됩니다.

날짜 10월13일 / 11월17일 / 12월15일 **시간** 19시 30분 **장소** 대연성당





2011년 성프란치스코의 집 가을의 수확

왕후의 밥! 왕의반찬!

따뜻하고 맛있는 우리집 주방냄새

사무국장 김형우

지난 7월~8월, 찜질방보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여름의 한증막을 지나, 두 달여간 진행되었던 주방 개·보수공사(국비, 시비보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난해 2월 이번 공사를 국가에 신청하기에 앞서 모티브(동기)가 되었던 수필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필은, 감수성 깊던 고등학교시절 김소은 작가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란 수필이었습니다. 삶의 고단한 여정 속에 부부의 사랑과 배려를 서로 말 없이 표현하고, 그 표현을 서로 느낄 수 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글귀는 “왕후의 밥! 절인의 찬!”이란 아름답고도 아련한 한 줄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글귀가 저의 마음 한 모퉁이에 맴돌다 불쑥~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부모님의 삶이 수필의 부부애와 동시에 오버랩 되어 저의 부모님과 수필의 부부가 동일 시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절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따스한 밥!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잘 맛 들린 반찬! 어머니는 밥과 반찬을 하시기 위해 연탄 또는 형편이 조금 나으면 곤로(기름가스레인저?)에서 준비를 하셨고, 그 시절 그 모습의 어머니와 주방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성프란치스코의 집 주방공사의 시작은 저의 아련한 추억에서 시작되었고 지금의 조리원분들과 영양사선생님에게 다시 투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지금도 가슴 뿌듯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주방을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효도는 못하고 투정부리는 저에 대한 대리만족인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두 번째의 모티브가 되었던 영화는 작년에 개봉되었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란 애니메이션(만화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인간 내면의 욕구와 욕심에 대한 유쾌한 경고가 저희 집 주방공사의 동기 부여는 아닙니다. 다만, 태고 적부터 시작된 인간의 먹거리 고민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더 편하게 먹고, 먹고 싶은 것을 맘껏 먹을 수 없을까? 그리고 먹고 나서 설거지와 뒷정리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였습니다!

물론 저희 성프란치스코의 집은 제가 다녀보았던 그 어떤 시설, 복지관보다 넉넉하고 훌륭한 음식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가 안전하게 준비되고 제공되어야 할 주방 내부설비와 주방기구들이 16년이 넘는 세월동안 낡고, 부식되어 위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은 물론이고, 설거지 등의 뒷정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주방기구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집 아이들에게 더욱 훌륭하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던 것이 영화를 보며 느낀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얗게 바뀐 주방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먹고 나서 뒷정리가 손쉽게 척척 되는 저희 집을!

이번 주방공사는 저희 성프란치스코의 집이란 나무의 조그마한 열매입니다. 앞으로 더욱 큰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즐기는 저희 집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여러분들의 지금과 같은 정성과 사랑이란 물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거름이 필요합니다.

“왕후의 밥, 왕의 반찬”이란 열매를 먹고 건강하게 훌륭히 성장하는 저희 집 아이들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왕후의 밥! 왕의 반찬!’ 이 나올 것 같은 주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방전경

가스레인지

배수시설

최혜순 영양사

위생적인 면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식기소독기, 칼·도마 살균기, 식기 세척기 등의 도입으로 살균력을 높일 뿐 아니라 업무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각종 위생시설과 더불어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 외부인의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사용했던 가스대의 노후로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번 공사를 통해 가스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안심이 됩니다.

이광선 최숙자 조리사

가스대가 낮아져서 무거운 솥을 들 때 허리부담이 덜어지고, 덕트의 흡입력이 좋아져 음식 냄새는 물론, 건조기의 열기도 빨리 제거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아직은 예전의 주방 동선에 익숙해져 바뀐 동선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듯 하지만 효율성이 높아지니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성프란치스코의 집

자원 봉사자

우동성당 성가정의어머니 자원봉사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지만 조명이 밝아져서 산뜻한 느낌이 들고
작업 능률이 높아져 좋습니다.

박양주 자원봉사자

더 청결하고, 넓어져서 좋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장영애, 홍수정 자원봉사자

주방이 밝아지고 시설물이 좋아져서
봉사활동 하기에 편해졌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집



우리들의
이야기.1

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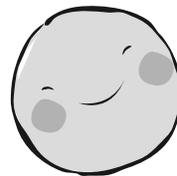
서영섭 아우구스티노 수사신부

가을은 봄의 성숙(成熟)이라고 합니다. 성숙(成熟)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물의 발전이 완전히 이루어짐,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짐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숙(成熟)은 가을이라는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낱말입니다. 가을 들녘의 곡식과 과일들이 영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영글어가길 희망해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함께 한 시간이 어느덧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의 변화 속에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집 친구들을 보면서 성장과 함께 성숙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많은 걱정 그리고 변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학습시키는 데 있어 많이 답답해하며 조금만 신경 쓰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아이들과 저 스스로에게 조바심으로 여유 없이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도 어제와 다른 오늘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게 되니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한 인간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아니라 몰이해와 폭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제 보단 나은 오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네 삶은 성장되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가위 연휴 동안 친구들에게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추석에 대한 기원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 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



지 않고 삼촌, 이모 말씀 잘 듣고 각자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도와가야 된다는 정도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아이들의 받아들이는 속도는
여느 아이들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은 세속적인 잣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계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순수한 친구들임을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에
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하
고 받아들이지 못해 과연 성장이 있을까? 회의감
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놓고 바라 볼 때 변화가 없는 듯 답보
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라는 시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친구들의 성장은 놀라웠
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 편견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가능성의 희망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을 일구어가면 열매를 맺는 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친구들의 희망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경험적으로 압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오
히려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듯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격이 무시
당하거나 변화의 발전마저 앗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
봅시다.

그저 하늘이 파랗다면 하늘은 매우 단조롭고 아름다움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군데군데 무리 짓
는 구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서로의 존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하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아프고 누가
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파도 함께, 기뻐도 함께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렵사리 일궈낸 보잘것없는 열매라고 하지만 그 열매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우리들의 이야기.2

미래의~!!
고숙희 선생님

꿈은 이루어진다!!

별님방 고숙희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친구들과끼리 병원놀이를 하며 간호사 역할을 한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꿈이 계속 바뀌고 또 바뀌다가 고등학생이 되어 꿈이 정해졌고 그 꿈을 위해 저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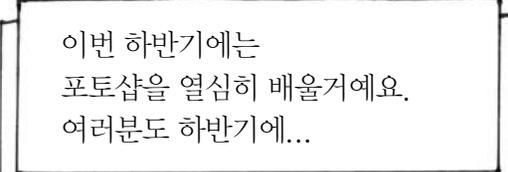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회체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으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공부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 중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은행에서 일 처리하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체험활동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에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키웠던 꿈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마냥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난관에 부딪쳐야 합니다. 때론 그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렵다고 시작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마저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힘들지만 도전하고 노력해볼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보면 언젠가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각자 소중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 꿈을 꼭 이루기 바랄게요!

라파엘의
그림세상





우리나라 우리은행 투게더 우리사랑 지원사업

가족사랑도 플러스+ 성프란치스코의집 사랑도 플러스+ 되던 날!

우리 더 사랑하게 됐어요...

- 대상 : 청소년 자녀가 있는 정기후원 6가정
- 일정 : 1차 7월 23일(토) ~ 7월 24일(일) / 2차 8월 13일(토) ~ 8월 14일(일)
- 내용 : 노력봉사 및 사회체험활동 (1차 부산아쿠아리움 / 2차 부산어린이대공원 내 어린이 회관)

바쁜 일상으로 인해 그 동안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청소년 자녀와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플러스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성프란치스코의집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이용자와의 사회체험활동을 통해 성프란치스코의집의 사랑도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첫 날 자원봉사활동과 성프란치스코의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본 관 및 글라라홀 정비를 해주셨습니다. 평소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들의 실력이 그대로 발휘되어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2010년에 실시한 프로그램 평가 시 이용자와 함께하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날은 이용자와 함께하는 사회체험활동을 했습니다.



1차팀은 부산아쿠아리움을 관람하고, 2차팀은 부산어린이대공원 내 어린이 회관의 체험관을 관람하였습니다. 후원가정에 체험활동 장소를 미리 안내해 드렸더니 사전조사를 하셨나봅니다. 우리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상하게 설명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자들이 참가과정과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또는 이용자의 이름을 넣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는 역할에 따라 '아빠', '엄마', '누나', '형', '동생' 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였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내가 아빠야, 형이야' 하며 설명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이용자 역시 '아빠~엄마~' 라고 부르며 가족 구성원에 관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많은 분들이 재참여 의사를 밝히셨고 일부 청소년 자녀들은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낸 소중한 시간들이 참된 봉사활동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저희도 뿌듯합니다. 함께해 주신 후원가정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참가자 소감문 중에서...



새태웅 가족

임용덕 후원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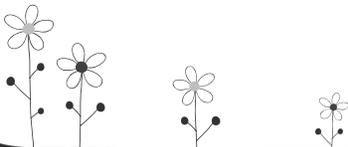
과연 내가 태웅이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나와 나의 가족이 더 많은 것을 얻고 가는 것은 아닌가? 되물어 봅니다. 천사 같은 미소, 비록 말과 행동은 어눌하지만 가식없는 모습이 나의 가슴에 무엇인가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특히, 딸과 아들도 힘들고 짜증이 날 만도 한 데 불평 없이 웃음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습니다.

배우자 김분영님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체험 활동시 선입견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막상 태웅이를 보니 비장애인과 별로 다른 점도 없으며 붙임성이 좋아 정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이용자와 놀아준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저희를 위해 놀아주었다'는 교육 영상물을 떠올리며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걱정이지만 진심을 담아 봉사하였습니다.

자녀 임동현

평소에 하던 봉사활동과 달리 새로운 봉사활동을 경험해서 새로웠다. 태웅이가 잘 따라주고 애교도 많아 무척 귀여웠고 뿌듯했다.





한은별 가족

안연순 후원자님

이용자들을 '편견 없이 편하게 잘 대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어 망설였는데 신기하게도 수줍어하고 어색해하던 은별이가 '엄마'라고 불러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엄마'라는 말에 나의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긍정적이고 밝음을 얻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밝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김옥석 후원자님

봉사활동이 처음이라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배운 좋은 시간이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용자에 대한 처음의 마음가짐이 부끄러웠으며 해맑게 웃는 은별이의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일찍 이러한 활동을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 김정훈

봉사활동 전에는 대중하고 봉사시간만 받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용자와 함께 아쿠아리움에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어졌다.



주한별 가족

이윤호 후원자님

이용자와 함께 하는 직접적인 체험은 처음이다. 한별이와 처음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었지만 한별이의 눈은 순수함 그 자체이었던 것 같다. 내 어색함은 '장애'라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조금만 편견이라도 버리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깊이 자리한 값진 시간이었다.

자녀 이운학

이번 봉사활동은 많은 추억을 선물해 주었다. 한별이가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사회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정받는 씩씩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박영애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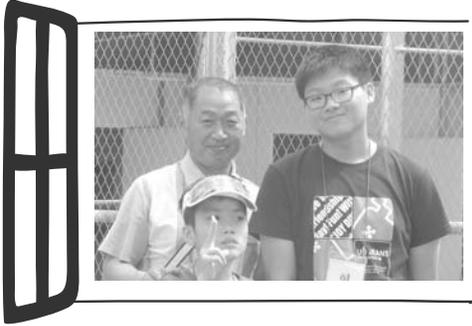
배우자 오동만님

영애와 한 가족처럼 아쿠아리움도 구경하고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니 뿌듯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더불어 살아갔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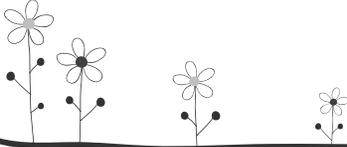
자녀 오채연

영애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걱정도 되었다. 영애와 나랑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잠이 많고 무서움이 많은 것, 그리고 낮가림이 심한 것까지... 짧았던 노력봉사도 재미있어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하러 오고 싶다.





배한주 가족



김점규 후원자님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우리의 진심어린 사랑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 사랑이 담긴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되었던 한주에게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기를 바란다.

자녀 김현석

처음하는 사회체험활동 때문에 긴장을 했었지만 한주와 만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함께 노는 것이 즐거웠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 외에는 우리와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참가해서 다시 한주와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김은숙 후원자님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을 많이 배웠고, 이용자를 통한 순수한 마음들을 다시금 깨닫게 했고 낯설고 어려웠던 이용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박승철 후원자님

영훈이를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상하게 함께 놀아주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영훈이와 함께 하면서 저의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면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가 된 느낌이었다. 스스로 일상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영훈이의 모습이 많은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라 생각한다. 작은 노력이나마 꾸준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자녀 박선영

우리나라 봉사활동 현황에 대한 교육 영상을 봤는데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은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영훈이와 사회체험활동 할 때에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체험도 많이 하게 해주고 싶었다. 영훈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나도 즐거웠고 한 '가족'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정영훈 가족



당신이 머무는 자리

2011.7.1 ~ 9.30

자원봉사

가사지원-목욕

곽승민 김성구 김우진 박재홍 윤종근 이가람 이은혜 이정목
귀족의뜨락 라온공동체 대한적십자사보건강사회 부산30대의센터

가사지원-세탁

김미라 김영신 김정숙 노민자 서영숙 성폭지 양혜진 이강연 채정숙 허경희
겸손하신모후(석포성당) / 교회의어머니,상지의옥좌,슬기로우신어머니(우동성당)
능하신정녀,영광의성모(남천성당) / 루르드의성모,모든성인의모후(광안성당)
성실하신어머니(연산성당) / 위로자의모후(좌동성당) / 부산여성회관수선팀

가사지원-이·미용 박상숙 조민정

가사지원-주방

강연수 권혁 김나운 김분자 김영혜 박삼식 박양주 박영자 이맹숙 임정숙 장승한
장영애 허숙자 홍수정 성가정의어머니(우동성당) / 지혜로우신동정녀(남천성당)

노력봉사

김말분 백정희 정순자 지안순 최복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55통신지원대대 / 국민연금남부산지사 /
국민은행 두경대못골존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검역검사소 / 망미독서회 / 동정녀들의어머니 (남천
성당) / 바로미 / 부산은행대연동지점 / 솔잎 여럿이함께 / 즐거움의 원천 (우동성당) / 청소년1,2,3팀 /
파라다이스면세점노동조합 / 해군 작전사령부 헌병전대 / 휴메트로청솔회 / NGEAL

업무보조 조석훈 PAM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박성은 윤선미 임민주 장창식 정병헌 조은지 차상은 최환
민심사랑 / 부산맛집술집 / 사랑나눔터 / 여럿이함께 / 정명릉도예공방 / 하안비둘기사랑모임

의료지원 김주영 노민자 천금자

학습지도

고권진 김경연 김경희 김수현 박상규 박현준 박현희 손은선 윤지현 이정민 이지수 장진경
차상은 최예슬 한수빈

3/4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수입		사용	
기부금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57,167,040	의료비	2,488,320
비지정후원금	42,141,400	사무비	20,463,840
결연후원금	550,000	사업비	8,686,874
		재산조성비	12,260,500
계	99,858,440		43,899,534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빠진 분이 계시면
양해를 구하며 꼭 전화 주세요.
(☎ 622-1652 박민정, 서영섭)

후원

신규후원

강동우 강봉상 김진우 서우영 윤재식 이재희 이재환
이혜정 장순옥 정은숙 차미주 취화선 코벤 플러스원돈가스

개인후원

강수무 강승원 강영규 강영숙 고경민 고남우 고영실 고평년 공병우 공숙희 곽영호 곽일수 구복연
권오봉 권택준 김경란 김경선 김경호 김국선 김근용 김근제 김근태 김기순 김대희 김도훈 김동준
김명희 김미리암 김미향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혜 김보순 김봉균 김상태 김선미 김성근 김송기
김수완 김숙희 김시교 김연수 김연순 김영철 김영화 김옥석 김유진 김윤성 김윤희 김은숙 김은영
김은주 김은희 김재민 김점규 김정남 김정남 김정범 김정엽 김정옥 김정환 김종대 김종완 김주식
김주홍 김준희 김지영 김해인 김현상 김현옥 김현정 김현준 김현해 김형우 김효식 김희숙 남기한
남숙희 노명자 노병덕 노옥희 노현숙 도경민 도재훈 류애라 류양아 류윤희 류인희 문병호 문영란
문종완 민남식 박경숙 박광훈 박민정 박상해 박선미 박승철 박영하 박윤정 박재석 박지영 박치환
박태원 박혜경(마리아) 박혜경(오틸리아) 박혜숙 배기덕 배윤지 배윤희 배은옥 배일태 백광현 백운수
변시몬 변재호 서승욱 서승환 서지호 석숙희 성병호 성화자 손윤경 손준식 송금이 송수복 신구진
신민철 신순숙 신승인 신운봉 신준설 신현대 심영숙 안연순 안장근 양봉금 양신석 양향열 엄경희
염갑훈 오희수 우준식 우재성 우창렬 유경국 유경근 유병규 유성재 윤도석 윤영철 윤종열 이건상
이경자 이광선 이금숙 이길상 이대희 이동세 이득희 이명순 이미란 이미자 이병제 이삼주 이상룡
이상만 이순화 이영희 이옥분 이용복 이윤근 이은일 이임순 이재영 이재용 이재우 이재훈(마티아)
이재훈(청솔화) 이정민 이정희 이진아 이찬구 이형래 이화계 이환용 임동현 임순애 임승재 임옥경
임웅혁 임인학 임재근 임철제 임춘희 장명숙 장지영 전근향 전우석 정 란 전을남 정남희 정두환
정민선 정성민 정수태 정숙희 정승호 정영국 정영이 정용식 정윤정 정윤주 정은선 정종학 정진연
정찬중 정찬현 정춘자 정태성 정태웅 정희정 조경숙 조말범 조영현 조옥련 조용철 조은영 조현영
주미혜 주선포 주성균 주정삼 지치안 진혜숙 차성진 천장호 최가진 최경남 최경실 최덕수 최동훈
최민희 최병석 최복례 최서윤 최선애 최선일 최숙자 최순자 최승근 최안나 최옥희 최윤옥 최원만
최윤선 최지선 최진욱 최창희 최혜순 최혜진 추미숙 하심근 하치순 하혜숙 한동이 한만섭 한명관
한미애 한수남 한영희 한일선 허 현 허순이 현명호 현영실 홍해숙 홍혜순 황영복 황은숙 익 명

고은산부인과 / 김재연한의원 / 김철현정형외과 / 동아대병원소아비뇨기과(조원열) / 바른눈안과 / 박영호치과 / 박창수한의원 / 성모병원가정의학과(정현주)

기업후원

국민연금남부산지사 / 동서합동(관) / 동성무역(주) / 유카로오토모빌 / 파라다이스글로벌(주)

결연후원

공태섭 공태임 김선자 김영순 김현정 박상현 박철재 서영섭 서원용 신은진 양회국 엄경호 이정민
이주한 녹천탕 영성학교 한국소방BS

단체후원

가톨릭설비회 / 고리원자력본부수은꽃 / 기장성당사회복지분과 / 남부경찰서여경회 / 남부소방서 /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 대연성당성물방 / 성모여자고등학교 / 소원종합설비 / 이마트단체지원 / 평화장터 / 해군작전
사령부헌병전대 / 해피빈 / 후원협의회 / 후원회미사봉헌금

물품후원

강준모 김민경 김민혜 김현석 김현옥 오재철 이영섭 이은영 장영표 조문섭 조은영 최우룡 최현석
익명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5정보 통신지원대대 / 동해상회 / 박창수한의원 / 부산대연우체국 / 부산시청건축
주택과 / 부산여성회관 / 삼성테크원 / 식신가 / 씨티은행남천지점연계익명 / 아모레퍼시픽(공동모금회지원사업)
아이올라 / 오프베이커리 / 은하우치원 / 하안비둘기사랑모임 / 휴메트로청솔화



사랑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후원안내

- 일반후원** 이용자의 생활과 서비스, 시설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자유롭게 후원
- 결연후원** 특정 이용자와 결연하여 후원
- 물품후원** 과일, 쌀, 간식류 (빵, 떡, 유제품 등), 디펜드 기저귀 (소중형, 대형), 하기스 기저귀 (특대형), 하기스 물티슈, 어린이 칫솔, 바디워시, 삼푸 등
- 지정후원**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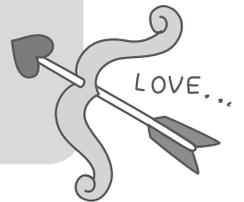
사랑을 나눠 주시려면

(예금주 : 성프란치스코의집)
 SC제일은행 507-10-014294 / 국민은행 556601-01-233237 / 부산은행 036-01-033700-8
 우리은행 1005-201-769468 / 농협 936-01-105492 / 결연후원 이용자 개인 계좌 (전화부탁)

※ 모금함,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후원참여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24조, 소득세법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드립니다.

(담당자 : 서영섭 ☎622-1652, 626-5766)



- 발행일** 2011년 10월 6일(목) (제38호)
- 발행처** 성프란치스코의집
- 발행인** 임태호
- 편집인** 박민정, 서영섭
-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6번길 51(대연동)
(남구 대연3동 390번지)
- 전 화** 622-1652, 626-5766
- 팩 스** 622-1625
- 홈페이지** www.franciscohome.or.kr
-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 이메일** fran1652@hanmail.net
- 인 쇄** 커뮤니케이션 文

